

21st KOREA YOUTH MEDIA FESTIVAL

제21회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

KYMF 2021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

2021.10.28.(목) ~ 10.30.(토)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유튜브 '스스로넷 TV' · 줌(ZOOM) · 제페토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법인	한국청소년문화의집
후원					

www.ssro.net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255(강일동 101-5)
TEL 02-795-8000 FAX 02-798-0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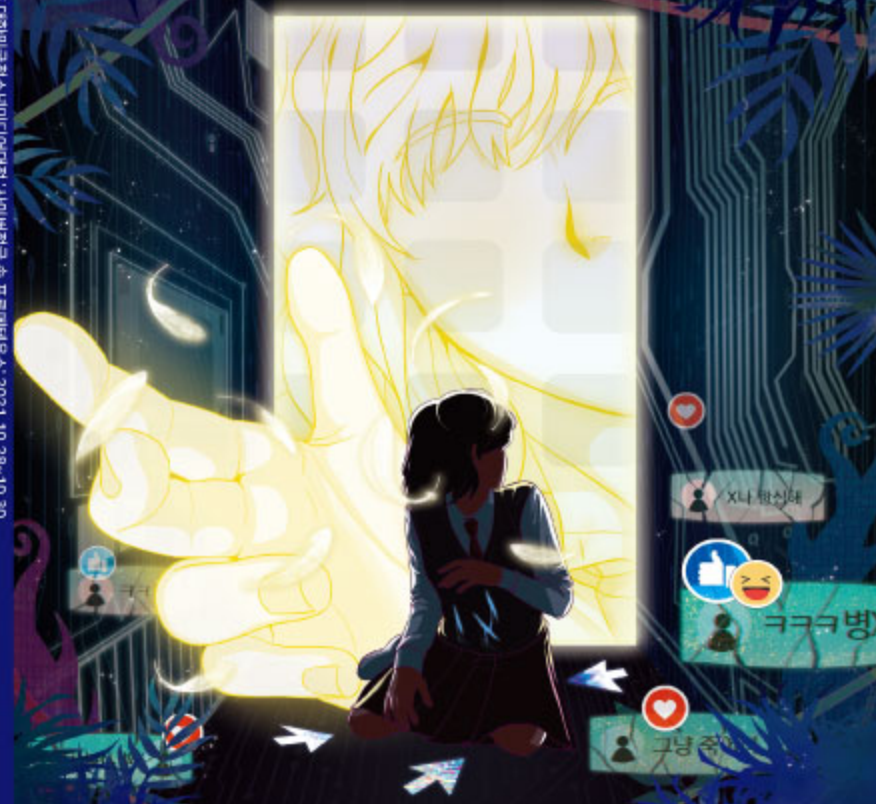
http://kymf.ssro.net

제21회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 집행위원회의

제21회 KYMF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 '사이버정글 속 프로메테우스' 2021.10.28~10.30

제21회 대한민국 청소년 미디어대전 사이버정글 속 프로메테우스

#사이버정글 #인생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2021년 10월 28일(목) ~ 10월 30일(토)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유튜브 '스스로넷 TV' · 줌(ZOOM) · 제페토

CYMF 2021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

2021 제21회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

2021 21st KYMF (Korea Youth Media Festival)

2021.10.28(목) ~ 2021.10.30(토)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 유튜브 '스스로넷 TV' · 줌(ZOOM) · 제페토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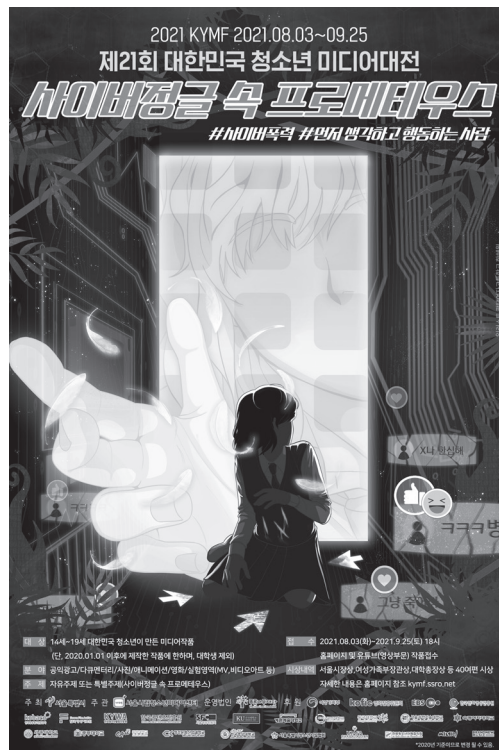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법인	푸른나무재단
후원	여성이족부	kofic	EBS	한국영화영상진흥원	KYWA
	한국콘텐츠진흥원	KU	계원예술대학교	국립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충무대학교	중앙대학교
	정경문화산업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홍익대학교	SF	서울영상위원회
	KIAFA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BRANDNEW MUSIC	미네리

공식 슬로건 & 포스터

2021KYMF의 특별주제

<사이버정글 속 프로메테우스>는

'사이버폭력'이 심각한 요즘 시대에
필요한 '먼저 행동하는 사람'을
청소년 시각으로 해석해보며
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러스트

한혜원(평택여자고등학교)
2021 KYMF 청소년 디자이너

- 05 인사말 -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관장
- 06 대회사 -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 07 KYMF2021 심사총평
- 08 조직 및 스태프
- 09 심사위원 (공익광고/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영화/실험영역/사진)
- 12 시상 내역
- 14 행사 안내
- 16 본선 진출작 - 공익광고
- 20 본선 진출작 - 다큐멘터리
- 26 본선 진출작 - 애니메이션
- 32 본선 진출작 - 영화
- 46 본선 진출작 - 실험영역
- 52 본선 진출작 - 사진
- 60 특별 수상 부문
- 63 행사장 안내

인사말

국내 최대 청소년미디어축제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이 21번째 막을 올립니다.

“미디어를 제작하는 사람으로 존중받는 기분, 다른 어떤 대회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경험이에요. 온전히 미디어제작자로 참여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보고 싶은 분야에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지난해 미디어대전에 참여한 청소년 미디어 제작자들의 소감입니다. 미디어대전은 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를 세상에 선보이고, 청소년 미디어 제작자들이 꿈을 이루어 나가는 기회와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쟁이 아닌 서로가 연결되고 연대하는 청소년 미디어 제작자의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 상황에서 더 긴밀해진 온라인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이버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제시해주길 바라는 이번 특별주제 ‘사이버정글 속 프로메테우스’. 2021년 미디어대전이 찾아낸 많은 프로메테우스로 인해 이 시대가 더욱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창작 활동을 이어온 청소년 미디어 제작자들과 뒷받침 해주시는 든든한 부모님들, 지도교사 분들께도 한 분 한 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바쁜 일정 중에도 청소년 미디어 제작자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애정으로 심사 뿐 아니라 청소년창작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뜻깊은 시간을 선물해주신 심사위원들과 후원을 통해 청소년창작자들의 꿈을 지지해주신 후원기관, 오늘의 미디어대전을 가능하게 지원해주신 서울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참가 청소년 제작자들에게 특별부상을 제공해 주셔서 앞으로의 제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푸른나무재단, 교육부, 사랑의 열매, 삼성 4개사의 협력 사업 ‘사이버정글 푸른코끼리(PUCO)’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청소년 미디어 제작자 여러분의 역량과 열정에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보지 못하는 일들에게 눈이, 말할 수 없는 이들에게 입이 되어주는 영향력 있는 건강한 미디어제작자들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1회 KYMF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 조직위원장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관장

이 정 연

21st KOREA YOUTH MEDIA FESTIVAL

제21회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

대회사

제21회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
개최를 축하합니다.

미디어 분야에 꿈을 꾸고 있는 청소년들이 서로 연결되고, 청소년 미디어 제작자들의 멋진 작품들이 이 사회에 선보이게 되는 국내 최대의 청소년 미디어축제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의 스물한 번째 무대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제약된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과 최고의 노력을 다한 청소년 미디어 제작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청소년 제작자를 지지해주신 부모님들과 교사 여러분,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서울시와 모든 후원사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올해는 특히 물리적 거리와는 상관없이 더욱 치밀해지고 맹렬해진 '사이버폭력' 세계로부터 소외되고 방치되어 있는 친구를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사이버정글 속 프로메테우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제작한 작품들이 큰 울림이 되어 사이버 세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미디어와 일상이 더욱 긴밀해진 시대를 맞아 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되짚어보며, 청소년들이 희망을 꿈꾸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푸른나무재단의 소명 또한 다시 되새겨봅니다. 비폭력 문화 확산을 위해 푸른나무재단은 특별히 '사이버정글 푸른코끼리(PUCO)상'을 통해 건강한 메시지를 전파할 청소년 제작자를 찾고 격려하고자 합니다. 약자도 강자도 모두 존중받고 보호받는 건강한 사이버정글을 꿈꾸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작품이 많아지고 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실천이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은 미디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도약을 응원하며, 국내 최고의 청소년 미디어축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고한 스스로를 칭찬하고 즐기는 진정한 '축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김 경 성

KYMF2021 심사총평

영상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 본선에 오른 여러분 모두 축하합니다. 이번 미디어대전은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일상을 보내며 영상작업을 하였다는 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작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류를 반영하듯 출품작은 인간사이 관계에 대한 불안과 소통 그리고 우정에 대한 주제를 다룬 작품이 많았습니다. 2021년 청소년들에게는 무엇보다 비 대면시대이기에 '관계'와 '소통'에 대한 관심사가 많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문제를 넘어 국가와 사회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녀상이나 한국전쟁 그리고 인권과 판자촌 형성 과정 등에 대한 작품을 보며 거시적인 역사 안목을 키워나가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다만, 영상작업에 대한 신선하고 발랄한 도전과 실험정신이 부족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2021년 청소년은 '문자'보다는 '이미지'로 사고하는 것이 편한 디지털세대입니다. 그에 맞는 '이미지'의 도전과 실험정신이 반영된 작품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상작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끊임 없이 지속되어 미래 한국 영상문화발전의 기둥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두영 (2021KYMF 심사위원장,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

사진

예년에 비해 상상력과 장르가 풍성해진 심사였다. 감성과 의미의 전달이 뛰어난 작업도 많았고 시각적으로도 흥미로운 작업들이 많았던 것 같다. 다만 청소년 사진에서 바라보는, 실험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업은 많지 않아서 아쉬웠다. 내년에는 좀 더 용감하고 엉뚱한 창의력을 기대해 본다.

- 오형근 (계원예술대학교 예술계열 사진예술과 교수)

올해는 자신의 생각을 사진으로 표현하기 위해 오랜 고민을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한 흔적을 볼 수 있어서 심사하는 내내 즐거웠다. 날이 갈수록 학생들이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 회자되는 여러 가지 이슈나 자신을 둘러싼 많은 것들을 자신의 것만으로 소화해 사진적 표현 역량이 향상되어가고 있다.

다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스토리텔링 방법에 대해 좀 더 가다듬게 된다면 완성도가 높아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그런 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진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다면 점점 나아질 거라 믿는다.

다시 한 번 수상한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이번에 수상하지 못한 학생들도 원인을 파악하고 생각을 다듬고 사진작업에 대한 성찰을 꾸준히 이어 간다면 다음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 위로의 말을 전한다. 참언 한다면, 이제는 타인을 촬영하고 그들의 사진을 출판이나 전시에 사용하려할 때에 publicity권에 대한 허가를 받아 놓을 것을 권한다.

- 허현주 (중부대학교 사진영상학과 교수)

조직 및 스태프

[집행위원장]

이정연

[집행위원]

금길호
유정민
김이현
윤지윤
조성이
김은혜
유영선
김강윤

[집행위원회]

견상진
고근국
김건희
김기석
김서정
김선정
김설희
김윤영
김종욱
류하은
서혜민
안아름
오유정
이인혁
이지우
임수연
장혜민
전아영
정이슬
조찬양
최재혁
한채림
홍승완
황혜정

[심사위원단]

광고 분야 자유주제/특별주제
예선, 본선

이문희
한규훈

다큐·애니·영화·실험영상 분야
자유주제 예선

공귀현
최현규
이선영
김민철
김성철
김종완

다큐·애니·영화·실험영상 분야
자유주제 본선

최두영
이창재
권철인

다큐·애니·영화·실험영상 분야
특별주제 본선

김의중
정재형
김윤신
강호준

사진 분야 예선, 본선

오형근
허현주

[청소년미디어문화기획단]

고나예
금동혁
김지우
김지우
민태원
박주윤
박준서
박지해
신재희
여은
유가온
이성현
최다윤
홍지민

[청소년미디어비평활동단]

김가빈
김민지
김윤영
김지민
신여진
오재영
이가애
이사랑
이영인
이예솔
임미래
장윤채
전은빈
황지윤

[도움주신 분들]

안유정
이요한

심사위원

공익광고 본선·예선 - 자유주제/특별주제



이문희 | 제일기획 디렉터

동아제약 박카스 캠페인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 캠페인
KT, 현대자동차, 국정홍보처, 삼성전자, LH 등 기업 협업
대한민국광고대상 금상, 은상, 우수상 수상
서울영상광고제,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대상 등 다수



한규훈 | 숙명여자대학교 홍보광고학과 교수

美 University of Georgia 광고학 박사
한국광고홍보학회 회장 역임
2017 대한민국 광고대상 심사위원장 역임
제일기획 브랜드마케팅연구소 책임연구원 (2005-2006)

다큐·애니메이션·영화·실험영상 예선 - 자유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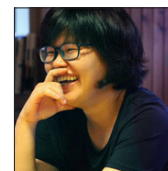
공귀현 | 영화감독

2016년 '탐욕의 별(장편 다큐멘터리)' 감독, 각본, 제작
2012년 'U.F.O.(극영화, 90분)' 각본, 감독, 제작
제5회 씨네마디지털서울영화제 무비콜라주상
제1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24th Toky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14th Taipei Film Festival



최현규 | 영화감독

화신사이버대학교 영상콘텐츠학과 교수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장편영화 <소은이의 무릎> 각본/감독
단편영화 <빛방울전주곡> 각본/감독



이선영 | 촬영감독

장편영화 <거짓말>, <간신>, <워킹걸>, <결혼전야> 촬영
온니버스영화 <어떤 시선> 촬영
장편영화 <무서운 이야기>, <U.F.O> 촬영
한국영화아카데미 18기

심사위원

다큐·애니메이션·영화·실험영상 예선 - 자유주제

**김민철 | 영화감독, 대학교수**

(현) 경남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박사(DFA/연출)
 <눈을 감아도 빛은 남는다> 연출 - 미장센단편영화제 외
 <거부할 수 없는> 장편 시나리오 - 부산국제영화제 외
 <길 위에 바치는 노래> 연출 - William and Mary Global Film Festival 외
 <리어카, 도둑> 연출 - 서울독립영화제,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외
 <2010년, 서울> 연출 - 벵쿠버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미장센단편영화제 외
 <소금이야기> 연출 - 가치봄영화제 외

**김성철 | 애니메이션 프로듀서**

(주)타임픽서 책임 프로듀서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애니메이션 전공 강의 (2013~2016)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아카데미 애니메이션 프로듀서(2008~2013)
 부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위원
 장편애니메이션 <로보99>, <배틀카이트>, <신비아파트2>, <달빛궁궐>,
 <동물탐정 주로링>, <로망은 없다> 등 다수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 다수

**김종완 | 뮤직비디오감독**

씨크루 대표
 G-Dragon '개소리', 모모랜드 '뽀뽀', 워너 '쏘쏘'
 리쌍, 페노메코, 수란 외 다수 연출
 한국영상대학교 촬영조명과 겸임교수 역임

다큐·애니메이션·영화·실험영상 본선 - 자유주제

**최두영 |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

장편극영화 제작 및 프로듀서
 장편극영화 <화이트-저주의 멜로디> 제작
 장편극영화 <방독피> 제작
 장편극영화 <극락도 살인사건> 제작
 장편극영화 <망종> 제작
 장편극영화 <당시> 제작

**이창재 |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영상학과 교수**

장편다큐 <노무현입니다> 연출
 장편다큐 <목숨> 연출
 장편다큐 <길 위에서> 연출
 장편다큐 <사이에서> 연출

**권칠인 | 영화감독**

前 인천영상위원회 위원장
 장편극영화 <사랑하기 좋은 날>(1995) 연출
 장편극영화 <싱글즈>(2003) 연출
 장편극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2007) 연출
 장편극영화 <원더풀 라디오>(2011) 연출
 드라마 <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 타임> 연출

심사위원

다큐·애니메이션·영화·실험영상 본선 - 특별주제

**김의중 | (주)생각하는 교육대표**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자문위원장 역임
 KBS 드라마 제작국
 한국통신 케이블TV 사업단 PD
 케이블TV 교육전문채널 PD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자문위원장

**정재형 |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제23대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회장(2015)
 제11대 한국영화학회 회장(2009~2010)
 한국영화학회 총무이사(2003~2004)
 한국영화연구소 소장(1998~1999)

**김윤신 | 시나리오작가**

장편극영화 <두번의 결혼식과 한번의 장례식> 각본
 장편극영화 <맨홀> 각색
 장편극영화 <순수의 시대> 각색
 장편극영화 <오케이! 마담> 프로듀서 겸 각색

**강호준 | 영화감독**

(주)콘텐츠나무 대표 / 한국독립피디협회 부회장
 다큐<어머니와 아들>(2001), 베를린국제 민속영화제 특별상
 옴니버스 극영화 <Kisses-생방송 오후 2시>(2011) 연출,
 다큐 영화<파밍보이즈 Farming Boys>(2016) 연출, 제작,
 다큐 영화<스쿨 오브 락>(2020) 연출, 제작
 그 외 KBS, NHK 등 국내외 방송 다큐멘터리 연출

사진 예선·본선 - 자유주제/특별주제

**오형근 | 계원예술대학교 예술계열 사진예술과 교수**

사회적 풍경(Social Landscape) 다큐멘터리 작가
 한국사회의 특정 인물군의 유형을 다루는 초상작업 진행
 제 51회 베니스 비엔날레 참여
 휴스턴 미술관, 타이페이 국립 현대 미술관, 비엔나 미술관 한국 현대 사진가 전 참여
 2011년 동강 사진 페스티벌 '올해의 사진가' 상 수상
 '아줌마', '소녀연기', 'Cosmetic Girls' 등 총 여섯 권 작품집 출간

**허현주 | 중부대학교 사진영상학과 교수**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원장 역임
 한국사진교육학회 회장 역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박사
 미국 Syracuse University S.I.Newhouse Public Communications 석사
 중앙대학교 사진학 전공 학사·석사

시상 내역

공익광고 부문 (자유주제 | 특별주제 통합 심사)

구분		자유주제(2)	특별주제(1)
본 상	시장상	서울특별시(1)	
	대학총장상	숙명여자대학교(1)	홍익대학교(1)

다큐멘터리 | 애니메이션 | 영화 부문 | 실험영역

구분		자유주제(21)	특별주제(5)
본 상	시장상	서울특별시(4)	서울특별시(1)
	장관상		여성가족부(1)
	기관상	영화진흥위원회(1) 한국만화영상진흥원(1) 한국영상자료원(1) 한국콘텐츠진흥원(1)	한국교육방송공사(1)
	대학총장상	건국대학교(1) 국민대학교(1) 동국대학교(1) 서울과학기술대학교(1) 서울예술대학교(1) 세종대학교(1) 중앙대학교(1) 청강문화산업대학교(1) 한국영상대학교(1)	동국대학교(1)
	단체상	서울영상위원회(1) 서울시청소년시설회(1)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1)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1)

시상 내역

사진 부문

구분		자유주제(6)	특별주제(1)
본 상	시장상	서울특별시(1)	
	기관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1)	
	대학총장상	계원예술대학교(1) 중부대학교(1)	중앙대학교(1)
	단체상	서울시청소년시설회(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1)	

특별상 (공통 | 중복수상)

구분		자유주제	특별주제
본 상	지도자상	푸른나무재단(1)	
	연기자상	브랜뉴뮤직(1)	브랜뉴뮤직(1)
	청소년심사위원상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1)	
	사이버정글가디언 푸른코끼리상(PUCO)		푸른나무재단(2)
	사이버정글가디언 푸른코끼리상(PUCO) &비폭력문화상	푸른나무재단(1)	
	관객상	씨네21(2)	

행사 안내 - 전체 일정표

10월 28일(목)	10월 29일(금)	10월 30일(토)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및 온라인 줌 (Zoom)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및 유튜브 '스스로넷 TV'	메타버스 제페토
2021 KYMF 코멘터리 공개 (13:00) 본선 진출작 부연설명 및 제작 비하인드 대화(G.V) 청소년미디어비평단 X 미디어문화기획단 심사위원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줌(Zoom) 파티 (18:00~20:00) 심사위원, 본선진출자, 비평단, 문기단	온라인 시상식 (18:00-20:00) 시상식, 축하공연, 2022년 특별주제 공개	2021년 본선진출작 전시

▶ 1일차 | 10월 28일 목요일

2021 KYMF 코멘터리 공개

2021 KYMF 코멘터리 KYMF대한민국청소년 미디어대전 홈페이지 13:00 오픈 예정	본선진출작 부연설명 및 제작 비하인드 대화(G.V) - 제작 : 청소년미디어비평단 X 미디어문화기획단 
---	--

네트워크 줌(Zoom) 파티, 본선진출자와 심사위원 간의 설레는 만남

네트워크 줌(Zoom) 파티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및 온라인 줌 (Zoom) 18:00 (2시간)	KYMF 네트워크 파티, 본선진출자와 심사위원 간의 만남 진행 김선욱 (영화미학연구모임 <씨네 루멘스> 대표)  네트워크 I KYMF 각 분야별 심사총평 KYMF 참여 인증 이벤트 네트워크 II KYMF심사위원 및 수상자 대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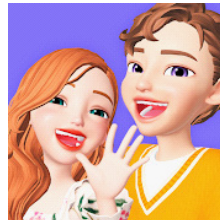
▶ 2일차 : 10월 29일 금요일

Youtube '스스로넷 TV'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시상식

온라인 시상식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및 Youtube '스스로넷 TV' 18:00 - 20:00	사회 강성규 (KBS 아나운서)  오프닝 영상(개막선언) 심사위원장 심사평 본선작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축하공연 시상식 2022년 특별주제 공개
---	--

▶ 3일차 : 10월 30일 토요일

또 다른 세상, 메타버스 제페토 월드에서 진행되는 2021KYMF 이미지전시회

2021KYMF 이미지전시회 ZEPETO / PC 또는 모바일 앱 상시	 2021KYMF 사진 본선작 전시 2021KYMF 공식포스터 전시 전시 인증샷 이벤트
--	--

공익광고 부문_자유주제, 특별주제

주제	작품명	출품대표자	소속
자유주제	돌이킬 수 없는 사고	나준혁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마스크 미착용시 들리는 노래	백유림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특별주제 <사이버정글속 프로메테우스>	노란 가면	김지안	계원예술고등학교

*작품명 배열 순서는 수상 순서와 다름을 안내드립니다.

21st Korea Youth Media Festival
(KYMF 2021)

공익광고 부문_자유주제



돌이킬 수 없는 사고

2021	공익광고
16:9	2min 21sec
칼라 HD	광신방송예술 고등학교

시놉시스

점심시간. 교실 뒤쪽에서 남학생 4명이 축구공을 툭기며 원바를 하고 있다. 복도에는 두 명의 남학생이 장난을 치며 뛰어가고 교실 앞문에서는 학생 두 명이 위험하게 문을 사이에 두고 장난을 치고 있다. 코너를 돌아 계단으로 가자 계단에서는 멀리뛰기를 하는 학생들이 보이고 계단을 서서히 오르자 계단 중턱에 앉아 공기를 하고 있는 여학생들이 보인다. 그리고 계단을 더 오르려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상자를 한 학생이 내려오고 있다.

기획의도

크고 작은 장난을 자주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별 생각 없이 하는 장난들이 방심하는 순간 얼마나 위험한지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작후기

처음으로 도전한 롱 테이크(장면 전환이 없는 촬영 방식) 촬영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촬영해야 사운드도 안 겹치고 ng도 없는데 혼자서 여러 명의 친구들을 통제하는 것은 역부족이었고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다음에 롱 테이크 기법을 이용한 촬영을 할 때는 사전에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할 것입니다.



SATFF	연출·편집 나준혁 촬영 객나희(메인), 안윤아
출연	김동규/이승호(축구 하는 학생 役), 이호영(다친 학생 役), 이시온(집 들고 계단 내려오는 학생 役), 안윤아/객나희(계단 중턱에 앉아 수다 떠는 여학생 役), 송재우/조석규(계단에서 멀리뛰기 하는 학생 役), 정하령/정재민/이상원(복도에서 달리기 하는 학생 役)
지도교사	신정옥

심사평

원씬원컷(One Scene One Cut) 스타일의 과감한 카메라워킹, 후반작업까지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완성도 높은 작품. 다만 다소 평이한 메시지 전개와 의외성 없는 직선적인 전개가 훌륭한 영상미에 비해 다소 부족 (이문희)

공익광고 부문_자유주제



마스크 미착용시 들리는 노래

2021	공익광고
16:9	1min 15sec
칼라 4K	매향여자정보 고등학교

시놉시스

과연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을까? 평범한 여고생 유림이는 우리 일상에 스며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마스크의 답답함을 느끼고,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는데...

기획의도

코로나19 라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불착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기획을 하였다.

제작후기

평소에 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마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직접 그 입장이 되어보니 경각심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고 그저 경각심만 주는 것이 아닌 노래를 넣어 재미와 유머로 반복되는 문장으로 오래 기억 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마스크를 쓰자는 노래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중독성 있게 들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완성을 했을 당시에는 이게 정말 중독성이 있을까? 라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계속 듣다보니 중독성이 있다고 느꼈다.



SATFF	기획·출연·편집 백유림 기획·연출·출연 정유경, 이민아 기획·촬영·연출 전건휘
출연	백유림(유림 役), 정유경(댄서 매니저, 유림 친구 役) 이민아(댄서선생님, 유림 친구 役)
지도교사	백진영

심사평

song을 동반한 반복적인 메시지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히 전달되었다. 좋은 메시지라인을 바탕으로 조금의 창의성과 의외성만 더한다면 더 좋은 공익광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문희)

공익광고 부문_특별주제



노란 가면

2020	공익광고
16:9	2min 1sec
칼라 HD	계원예술고등학교

시놉시스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작은 사이버 세상에 갇힌 시민. 익명의 사람들로 부터 언어폭력을 당하고 자신을 더욱 어두운 세상에 가둔다. 그러던 시민에게 노란 가면을 쓴 누군가 찾아오는데..

기획의도

얼굴을 마주하는 대화가 아닌 온라인상에서의 소통이 잦아진 요즘, 소리 없이 날아오는 말이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가해자들이 손가락을 멈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이미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온라인 속 작은 감옥을 깨고 나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을 "노란 가면"이라는 조력자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노란 가면의 주인공이며, 또 다른 곳에서 아파할 피해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나비효과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제작후기

머릿속에서만 그려지던 이미지들이 내 눈 앞에 나타나니 신기하고 뿌듯했다. 또한 의미 있는 주제인 만큼 내가 만든 영상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도 생겼다. 나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된 작업이었다.



SATFF	기획·연출·촬영·편집 김지안
출연	김지안(노란 가면 役), 박시민(시민 役)
지도교사	이형철

심사평

가면이란 상징적인 존재 설정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 광고적인 창의성을 잘 활용한 좋은 작품을 만나게 되어 즐거웠다. 다만, 좀더 분량(초수)을 줄여서 스토리와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가다듬는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이문희)

다큐멘터리 부문_자유주제, 특별주제

주제	작품명	출품대표자	소속
자유주제	과거와 오늘의 상생: 판자촌의 현주소	박채윤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섬 친구를 그리다	이태양	계원예술고등학교
	재조명	장다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작품명 배열 순서는 수상 순서와 다름을 안내드립니다.

21st Korea Youth Media Festival
(KYMF 2021)

다큐멘터리 부문_자유주제



과거와 오늘의 상생: 판자촌의 현주소

2021	다큐멘터리
16:9	20min 59sec
칼라 HD	용인한국외국어 대학교부설고등학교

시놉시스

“6.25 후에 그런 스레트 집 몇 채 있었고 그 외에는 없었다...” 6.25 전쟁을 피해 전국 각지에서 남쪽의 부산 끝 자락으로 온 피란민들이 만든 판자촌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과거 우리나라의 모습을 여전히 보존하고 있는 마을로 자리잡게 되었지만, 현재 우리 사회와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판자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안창마을, 재개발로서 새롭게 발 맞춰가는 매곡지 마을, 그리고 과거의 흔적을 아름다운 전경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킨 감천문화마을 속에 들어가 직접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기획의도

우리의 사회에서는 옛 것과 새로운 것 가운데서 타협해야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주어진 다양한 선택지들은 각각의 밝고 어두운 면들이 있는데, 이를 ‘판자촌’이라는 주제로 풀어가고 싶었다. 어렸을 때부터 부산에서 판자촌을 오며가며 많이 봤었는데, 그 속에 녹아있는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고, 현재 판자촌들에 대한 각기 다른 대응들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조명해보면서 보는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게 하고 싶었다.

제작후기

판자촌이라고 해서 그분들만의 특별함을 기대했었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 대화를 나눠보면서 결국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임을 알게 되었다. 현장에 처음 혼자 갔을 때는 인터뷰를 시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는데, 이후에는 정중하게 허가를 구하고, 편하게 대화를 나눈 뒤 마스크 여러 장을 감사의 선물로 드리며 헤어지는 과정은 서로에게 특별한 인연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다큐멘터리의 미학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SATFF	기획·촬영·편집 박채윤
출연	인터뷰에 응해주신 강대춘, 백계영, 김홍길, 장두리, 이병구, 김영철, 김미영 님
지도교사	김민경

심사평

진실을 탐구하는 다큐의 장점을 잘 살린 완성도 높은 작품. 특히 내레이션을 잘 썼습니다. (이창재)

다큐멘터리 부문_자유주제

다큐멘터리 부문_자유주제



섬 친구를 그리다

2021	다큐멘터리
2.35:1	9min 50sec
칼라 HD	계원예술고등학교

시놉시스

두 친구가 선감도를 방문한다. 아름다운 섬, 대부도. 겉보기에 평온하고 아름다운 관광지인 이 섬 끝자락에 이다지도 아픈 과거가 있을 수 있을까? 두 친구는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한 어른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 충격적인 과거를 듣게 된다. 어린이들과 청소년에게 부랑자라는 명목으로 가해진 폭력과 그 아픔의 역사를 되짚어 본다.

기획의도

대부도 '선감학원'.1980년까지 지속된 인권유린의 현장에서 살아나온 피해자가 다시 그 곳을 방문한다. 더 이상 그의 증언이 푸념과 하소연에 그치지 않도록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이 작품을 기획하였다.

제작후기

더 이상 아픈 과거가 반복 되지 않기를...



SATFF	연출·기획·촬영·편집 이태양 촬영 이태양, 이상현
출연	이태양, 장민술
지도교사	이찬영

심사평

대부도의 어두웠던 '선감학원'. 노인이 된 선감학원 피해자를 통해 인권유린의 현장의 실상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 그 시절 견뎌냈을 같은 또래의 친구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따뜻함이 전해지는 다큐멘터리다. (이선영)



재조명

2021	다큐멘터리
16:9	14min 05sec
칼라 HD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시놉시스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현재 삶이 궁금해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서산시지회에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그분들이 직접 겪은 참혹한 전쟁의 실상을 듣게 되었고, 이 나라를 힘들게 지켜낸 영웅들이지만,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사회적으로 그 영웅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 현역 장병과 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안타깝게도 그 영웅들이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획의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참혹한 6.25전쟁이 일어났고,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을 때 나는 얼마 전 돌아가신 나의 큰할아버지가 6.25참전용사라는 것을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되었다. 큰할아버지는 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 오셨다. 나는 궁금했다. “우리는 오늘날 저 수 많은 영웅들을 기억하고 있을까?”, “지금 영웅들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 이 물음표들로부터 시작된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들에게 잊혀진 영웅들을 재조명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작후기

세상은 이런 아픔을 잊어가고 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그분들이 영웅으로써 잊혀지지 않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합당한 처우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기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는 짧은 순간만이라도 기억해주세요. 잊혀진 영웅들을.



SATFF	기획·감독·(메인)촬영·편집·나레이션 장다연 촬영 장영범
출연	대위 추유나, 상사 장영범, 일병 김영래(제20전투비행단) 지회장 이능억, 사무국장 김낙영, 전 지회장 장경옥(6.25 참전유공자회 서산시지회) 권혜진, 김수연, 조서운, 이승연, 백선빈(서울공연예술고등교)
지도교사	

심사평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경청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중반 이후 다소 감정에 치우친 논리 전개는 아쉽지만, 작품에 임하는 성실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김민철)

애니메이션 부문_자유주제

주제	작품명	출품대표자	소속
자유주제	꼬리	김효정	경기예술고등학교
	만수국	방하늘	경기예술고등학교
	발표	전성원	경기예술고등학교
	좋아헤어	윤영실	경기예술고등학교
	트로이	이해진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특별주제 <사이버정글 속 프로메테우스>	Web	조아란	경기예술고등학교

*작품명 배열 순서는 수상 순서와 다름을 안내드립니다.

21st Korea Youth Media Festival
(KYMF 2021)

애니메이션 부문_자유주제



꼬리

2021	애니메이션
16:9	7min 34sec
혼합 HD	경기예술고등학교

시놉시스

꼬리 없는 인어들로 이루어진 세상. 그곳에는 스스로 꼬리를 자르고 다리를 이어붙이는 수술이 관습으로서 존재한다. 주인공은 사회의 시선과 트라우마 탓에 다리 수술에 집착하고, 이를 반복하기도 하지만 끝내 이것들에 게서 벗어나는 데 성공하고 자신의 진정한 본질인 인어로서 바다로 돌아가게 된다.

기획의도

저희는 '꼬리'를 통해 자신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 물을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아무리 가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듯, 주인공 또한 거듭되는 수술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지느러미가 돌아옵니다. '꼬리'는 이와 같이 신호를 보내오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로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제작후기

저희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처음 기획부터 완성까지 이끌어냈다는 의미있는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저희 모두 꿈을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인 만큼 저희 또한 작품 제작에 차질이 많았습니다. 짧은 제작기간과 온라인 소통의 한계 탓에 완성까지 순조롭기만 하진 않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작품완성의 감회가 크고 뿌듯합니다.



SATFF	감독 김효정, 임태희, 정수아
지도교사	조성우

심사평

다양한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 하였음에도 이질감이 없이 조화를 이루며, 작품 의도에 벗어나지 않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가는 작품이다. (김성철)

애니메이션 부문_자유주제



만수국

2021	애니메이션
16:9	6min 14sec
칼라 HD	경기예술고등학교

시놉시스

만수국 꽃밭에서 뛰어놀던 주인공과 친구가 일본군에 의해 잡혀간다. 소녀들은 일본군들에 모진 고문을 받고 고통에 얹힌 주인공은 결국 자살을 결심한다. 그러나 친구의 덕분에 구해지게 되고 둘의 우정은 더 깊어진다. 그러나 일본군에 의해 친구는 주인공을 위하여 희생하고 죽게 된다. 그렇게 주인공은 홀로 해방을 맞이하고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된다. 옛날에 친구와 함께 놀던 만수국 꽃밭으로 간 주인공은 그곳에서 죽은 친구를 환상 속에서 보고 추억에 잠긴다. 마지막으로 친구가 주인공의 귀에 만수국을 꽃아줌으로써 행복한 결말을 암시 한다.

기획의도

작품의 주제인 만수국의 꽃말은 언젠가 반드시 올 행복이다. 꽃을 주제로 한 이유는 꽃은 여러지만 겨울을 내고 다시 봄에 피어오르는 굳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인공도 힘든 일을 극복하고 싸워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꽃을 비유했다. 반면 일본군은 뱀으로 표현했는데 뱀은 탐욕, 악으로 비유되곤 한다. 주인공이 악몽을 꾸는 장면에서 뱀이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피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는 모진 고문과 악랄한 행위 비유적으로 표현했고 곧 이것들이 소녀의 목을 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제작후기

코로나로 인해 제작여건이 좋지 않아 원래는 수작업 애니메이션으로 진행하고 싶었으나 비교적 쉬운 2d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만들었는데 자주 만날 시간이 없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점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스토리나 연출 부분에선 표현하고 싶은 모든 것을 표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족스럽고 첫 작품 인 만큼 많은 애정이 가는 애니메이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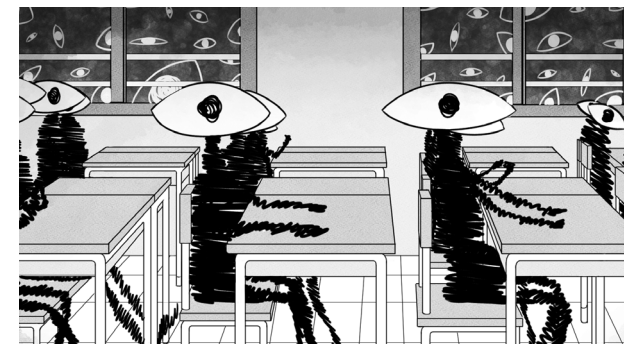


SATFF	감독 김성령, 방하늘, 홍은채
지도교사	조성우

심사평

주인공이 겪었을 무겁고도 무거웠을 감정과 주제를 차분히 그리고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였다. (김성철)

애니메이션 부문_자유주제



발표

2021	애니메이션
16:9	4min 15sec
혼합 HD	경기예술고등학교

시놉시스

한 아이가 수업도중 선생님께 지목을 받아 발표를 하게 된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모두의 시선은 아이에게로 향하기 시작한다. 단 1분,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하는 시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1분보다 훨씬 긴 시간으로 느껴질 지도 모른다.

기획의도

우리가 살아오며 해온 수많은 발표들. 하지만 아무리 익숙해진들 발표에 대한 중압감과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발표를 하며 느끼는 여러 감정들을 다양하게 표현하여 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이로 하여금 서로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 작품을 기획하였다.

제작후기

홀로 작업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제작을 마치고 나니 뿌듯했다. 이번 제작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다.



SATFF	작품 기획 및 제작 전성원
지도교사	조성우

심사평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 보았을 익숙하지 않은 발표라는 경험의 감정을 애니메이션 작화 기법을 사용하여 잘 표현하였다. 특히 캐릭터의 심리적 표현이 좋았다. (김성철)

애니메이션 부문_자유주제



종아헤어

2021	애니메이션
16:9	4min 12sec
칼라 HD	경기에술고등학교

시놉시스

‘폭탄머리 소녀의 고백 대작전!’

주인공 몽실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이찬에게 고백하기 위해 콤플렉스였던 악성 곱슬머리를 바꾸려 한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도 통하지 않았고, 결국 그대로 이찬과 마주하게 된다. 자신의 머리카락 때문에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왜인지 그는 폭탄머리, 즉 몽실의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 준다.

기획의도

외모 콤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코믹스럽고 유쾌하게 담아낸 애니메이션을 만들고자 하였다. 폭탄머리 소녀 몽실을 주인공으로 한 러브 스토리를 보여줌으로써 남들과 조금 달라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제작후기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만난 친구들과 처음 해보는 애니메이션 제작을 잘 끝마치게 돼서 뿌듯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작품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학교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한 해 동안 친구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SATFF	제작 운영실 공동제작 박소연
지도교사	조성우

심사평

등장 주인공의 콤플렉스를 유쾌하면서도 애니메이션에서만 보여 줄 수 있는 과장된 액션을 적절히 잘 표현하였다.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의 완성도가 높다. (김성철)

애니메이션 부문_자유주제



트로이

2021	애니메이션
16:9	4min 31sec
칼라 HDV	한국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시놉시스

VR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던 대협이 VR세계의 지배자 만식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 잠입하는데...대협이와 만식의 '진짜'를 가리는 싸움!!!

기획의도

익스트림한 액션과 화려한 색감이 주를 이루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은 아직까지는 흥미롭고 신기하기만 하다. 그러나 언젠가 '실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지는 시대에 도달했을 때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게 될까? 무엇이 실존하는지 무엇이 실체인지 가늠할 수 없는 세상을 상상하며 이 애니메이션을 기획하였다.

제작후기

액션물을 만들어 보고 싶은 3명의 친구들이 모여 최선을 다해 제작했습니다. 작업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SATFF	감독 이해진, 김민교, 이해인
지도교사	김정운

심사평

사이버펄크를 표방하는 세계관과 애니메 스타일의 작화가 사운드와 함께 잘 어울린다. 액션물을 좋아하는 세 친구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 같다. (김성철)



Web

2021	애니메이션
16:9	3min 58sec
칼라 HD	경기예술고등학교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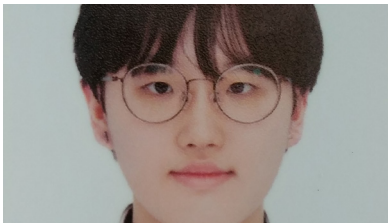
현우라는 주인공은 반쪽 얼굴이 흉터로 뒤덮여있어 반쪽 얼굴만 보이며 활동하는 인기 SNS스타이다. 현우는 고 시원에 이사하고 이사가기념 라이브방송을 진행하다 실수로 이웃집 사람에게도, SNS에도 모든 얼굴을 보이게 된다. 그 이후 이웃집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나가라며 컴퓨터엔 현실과 다르게 현우를 응원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현우는 현실이 아닌 SNS 속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며 점차 컴퓨터 중독에 빠져든다.

기획의도

인터넷 중독에 점점 빠지는 걸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시각화하여 거미와 거미줄이라는 오브젝트를 사용하였다. 주인공이 컴퓨터를 끄면 작은 거미가 밟아서 죽는 연출, 점점 중독될 때는 방이 거미줄로 뒤덮여 지거나 거미줄이 주인공을 조종하는 형태 연출을 사용했다.

제작후기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원래 촬영 예정이 되어있었던 학교에서 촬영을 하지 못해 각자의 가정집에서 암실을 만들고 세트를 설치하고 촬영하는 환경이 적절치 못하여 힘들었다. 하지만 열심히 작업했고 그만큼 완성된 것 같아 뿌듯하다.



SATFF	감독 조아란(메인), 정예린, 김정우
지도교사	조성우

심사평

많은 작품들이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적 시각인 것에 반해 가해와 피해를 이야기속에 가미하며 주동 인물의 인터넷 중독이라는 메시지를 영화적으로 멋지게 표현 (정재형)

21st Korea Youth Media Festival
(KYMF 2021)

영화 부문_자유주제, 특별주제

주제	작품명	출품대표자	소속
자유주제	REC	김라희	계원예술고등학교
	바람이 불니다	유승현	스스로넷 영화제작동아리 아그로
	생존할 차례	강채연	이우고등학교
	소라소리	김정민	경기예술고등학교
	악점	정다혜	서울방송고등학교
	위선자들	이태양	계원예술고등학교
	이기주의	고지성	전주제일고등학교
	충간화음	양선민	경기예술고등학교
	클릭	이상윤	청소년영화제작전문그룹
	현재의 소원	조해슬	경기예술고등학교
특별주제 <사이버정글 속 프로메테우스>	Air Drop	이지혜	서울방송고등학교
	Jazz on the Floor	이수민	이현고등학교
	플레이어 X	이희찬	군산서흥중학교

*작품명 배열 순서는 수상 순서와 다름을 안내드립니다.

21st Korea Youth Media Festival
(KYMF 2021)

영화 부문_자유주제



REC

2021	영화
16:9	15min 6sec
칼라 HD	계원예술고등학교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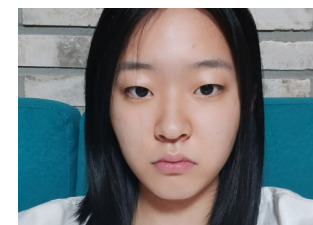
학교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학생회. 학생회실에서 몰래카메라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학생회 앞에 범인이 뻔뻔하게 나타난다. 범인은 자신이 가진 영상들로 전교부회장 후보 다빈을 협박하는데...

기획의도

요즘 경쟁사회에서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들을 덮기 위해 또다른 잘못들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며 언젠가는 그들이 똑같은 이들로 인해 돌려받게 될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제작후기

너무 찍고 싶었던 영화였기에 제작하는 내내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 영화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찍으면서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기에 앞으로도 계속 영화를 찍고 싶습니다.



SATFF	감독(연출) 김라희 촬영감독 김지안 프로듀서 강유빈 동시녹음 김도현
출연	박현우(이다빈 역), 홍승일(주형우 역), 정승연(서인아 역), 이린벨무데즈(김유림 역)
지도교사	이찬영

심사평

정말 심각한 문제인 '몰카'마저도 권력(?)을 위해서라면 별 것 아닌 문제가 되어버리는, 현 세태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잘 드러낸 작품입니다. (최현규)

영화 부문_자유주제



바람이 불니다

2021	영화
1.85:1	11min 28sec
칼라 HD	스스로넷 영화제작 동아리 아그로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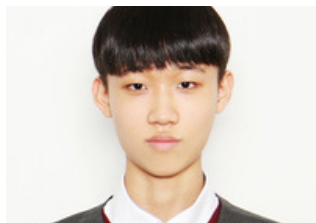
윤희는 짝사랑하는 소녀 해찬과 가까워지기 위해 유난히 수줍음 많은 성격을 무릅쓰고 교실에서 반 아이들이 하고 있는 '바람이 불니다' 게임에 끼기로 결심한다. 해찬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멀어질 때마다 윤희의 마음도 오르내린다. 게임이 진행되던 중 해찬이 소매 단추를 떨어트리려고도 모르자, 윤희는 단추를 주워 해찬에게 건네주기 위해 그의 주위를 서성인다.

기획의도

10대의 감정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지를 문득 깨달았고 그것들을 기록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학생 때 느꼈던 열등감과 자격지심, 그러면서도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었고 사랑을 주고받고 싶었던 그 감정들을 천천히 되짚어가며 '바람이 불니다'를 기획하게 되었다.

제작후기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오직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찍고 싶은 주제가 있고 그것을 찍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라면 청소년이라도 충분히 좋은 영화를 찍을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화를 만들면서 거쳐야하는 여러 과정들을 이론상으로만 봤을 때는 크게 와 닿지 않았는데 영화를 실제로 제작하다보니 그 과정들의 왜 존재하는지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영화를 같이 찍는 크루들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영화는 혼자 찍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찍는 것' 이것이 영화를 만들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라 할 수 있겠다.



SATFF	감독, 각본 유승현 조연출 연혜린 스크립터 최서영 슬레이터 오재영 연출부 임옥현 프로듀서 장유진 촬영감독 황현성 촬영부 박건물(메인), 김보경, 손기현, 한도원 조명감독 공시현 조명부 정민교, 김다인 음향감독 박윤정 미술감독 김나영 미술부 이재은 편집감독 김민승
출연	황서윤(서우 役), 양성일(선생님 役), 이종원(학생1 役), 송누리(학생2 役), 김현준(학생3 役), 송해인(학생4 役), 김도영(엑스트라1 役), 백민지(엑스트라2 役)
지도교사	이인혁

심사평

엔딩에 대한 궁금함과 동시에, 또 조금은 답답한 느낌도 있었는데, '피식', 그 장면이 너무 짧고 좋아서 다 용서(?) 할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최현규)

영화 부문_자유주제



생존할 차례

2020	영화
16:9	22min 40sec
칼라 HD	이우고등학교

시놉시스

5인 이상 모임 금지령이 내려져도 설날은 찾아왔다. 설마하며 온 친척이 모인 원하네 가족. 이때 삼촌의 핸드폰을 울린 한 통의 전화가 모두를 울리게 된다.

기획의도

가면 같은 마스크 너머 '나'와 '그들'을 구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진 코로나19의 시대. 그러나 마스크에 미처 감춰지지 못한 냉소와 혐오는 어디에 머물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영화는 감염병 시대의 인간들이 내뱉는 말과 내뱉지 않는 말을 파헤친다.

제작후기

저희 영화제작팀 둔치는 성인으로 넘어가는 둔치에서 함께 모여 영화를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영화 제작 경험이 없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이 해야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좋은 팀워크를 보여준 것 같아 영화의 결과물과 별개로 정말 만족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영화 제작을 위해 펀딩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비롯하여 제작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SATFF	연출 강재원 조연출 손수아 촬영 정명승(메인), 김무비, 최호영 음향 윤선우 제작피디 조희원 제작 오은결, 정의현, 장희원, 이예원 음악 노주환
출연	신이재(원하 役), 양동훈(삼촌 役), 박지은(이모 役), 김영래(이모부 役), 가비(엄마 役), 한상봉(아빠 役), 서빈(사촌언니 役), 이인규(할아버지 役)
지도교사	박연정

심사평

청소년의 시선으로 보여주는 현실 세태에 대한 관찰과 묘사가 좋습니다. (권철인)

영화 부문_자유주제



소라소리

2021	영화
16:9	21min 16sec
칼라 HD	경기에술고등학교

시놉시스

부모님과 함께 사고를 당했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온(16,여)은 부모님을 잡아먹고 살아난 아이라는 소문을 피해 남해 시골 할머니(67,여) 댁으로 도망치듯 내려온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던 온의 곁에는 항상 무언가를 죽여라 먹게 하고, 또 수시로 죽겠다 중얼거리는 할머니가 있게 된다.

기획의도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셔서 외할머니, 할머니 댁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여러 말씀을 해 주시고, 항상 나를 우선적으로 생각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평소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영겨 있던 생각들을 풀어 이어나가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되었다.

제작후기

제작지원금을 받게 되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던 시나리오를 현실로 불러낼 수 있어 행복했지만, 내가 상한 기대치에 결과가 미치지 못해 많이 아쉽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내가 더 큰 영화감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



SATFF	감독·시나리오·편집 김정민 미술감독 임하은 조감독 송유진 프로듀서 민결 스크립터 홍예인 사운드감독 허지원 조명감독 최예원 촬영감독 여서현
출연	김아진(이온 役), 권민경(할머니 役)
지도교사	박은형

심사평

주인공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가족을 잃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을 담담하면서도 섬세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행동으로써 보여주는 삶의 교훈이 인상적입니다. '죽여라 살자.' (김민철)

영화 부문_자유주제



약점

2021	영화
2.35:1	19min 18sec
칼라 HD	서울방송고등학교 영상콘텐츠제작반 해시택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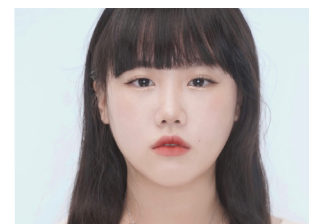
평소 학급회장을 도맡아하며 남들에게 매우 모범적인 이미지를 보여준 채 살아가는 서진. 하지만 겉과 다르게 서진의 속은 그리 착하지만은 않다. 남몰래 불평, 불만을 속으로 삼키며 자신의 약점을 외면하던 서진. 그러던 중, 서진의 약점을 우연히 듣고 무리한 부탁을 계속해서 요구하며 다가가는 도희. 서진은 도희의 부탁을 거절하긴 하지만 자신과 정반대의 성격인 도희에게 계속해서 눈길이 간다.

기획의도

단편영화 '약점'의 이야기는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지만 보편적이진 않은 약점을 다루며 방황하는 청소년을 등장인물들의 서사에 이입해 담으려 함으로 불안정한 그 인물들이 서로 연대하며 느끼는 감정들을 표현해내고 싶었다.

제작후기

단편영화 '약점'의 이야기는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지만 보편적이진 않은 약점을 다루며 방황하는 청소년을 등장인물들의 서사에 이입해 담으려 함으로 불안정한 그 인물들이 서로 연대하며 느끼는 감정들을 표현해내고 싶었다.



SATFF	연출, 미술, 편집보조 정다혜 조연출 방다은 제작(PD) 김혜민 제작부 김희지, 김신우 촬영 오승익 촬영부 한주오, 황소명 음향 이민영 음향부 김희재 조명 김채린 편집 류승우
출연	우민정(서진 役), 방민하(도희 役), 임서현(지예 役), 여예진(학생1 役), 백지수(학생2 役), 김민주(서진 아역 役), 조성하(남자아이1 役), 유도윤(남자아이2 役), 정찬(남자아이3 役), 황남진(아빠 목소리 役), 이수빈, 표지민, 표지영, 양수연, 김채린(엑스트라 役)
지도교사	김나현

심사평

경쾌하지만 진지한 스토리텔링으로 관객의 마음을 야금야금 훔쳐가는 매력적인 작품 (공귀현)

영화 부문_자유주제



위선자들

2021	영화
2.35:1	31min 50sec
혼합 HD	계원예술고등학교

시놉시스

힘 있는 교내 채플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혁은 친구들에게 담배를 강제로 팔아서 용돈을 마련한다. 한편 동아리 부장 요한은 현금통에 손을 대고 있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예린이. 극한의 긴장 속에서 각자의 이익을 취하려는 학생들의 신경전이 시작된다.

기획의도

사람들은 여러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 종교적인 믿음, 관계 속에서의 믿음. 누군가는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누군가는 그 믿음을 이용한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오만함을 감추기 위한 방패로 또는 이익에 따라 진정성 없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내 자신에게 던진 질문에서부터 이 영화는 시작되었다. 사회 안전망의 보루인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그릇된 기성세대의 편박이 모습들을 통해서 학교 안과 밖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영화가 되길 바란다.

제작후기

최선을 다하였다. 그거면 됐다.



SATFF	연출, 각본, 편집 이태양 촬영 김다훈 제작 장서운 음향 김도현
출연	박종희(재혁 役), 박연아(예린 役), 구자건(희성 役), 박성호(오한 役), 정찬우(규민 役), 이수형(선생님 役)
지도교사	이찬영

심사평

이야기 구조가 탁월하고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습니다. 특히 극의 서스펜스를 주는 방식이 돋보입니다. (이창재)

영화 부문_자유주제



이기주의

2021	영화
16:9	14min 47sec
칼라 HD	전주제일고등학교

시놉시스

조회수가 적어서 걱정인 영상 크리에이터 재욱은 우연히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는 '몰래카메라'를 올리게 되고, 조회수가 오르게 된다. 이에 재욱이는 더 자극적인 몰래카메라를 찍기 시작한다.

기획의도

단순히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그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었다.

제작후기

처음 촬영해보는 영화여서 미숙했지만, 그래서 더 보람찼던 것 같다. 따라와 준 팀원들에게 너무 고맙웠다.



SATFF	연출, 각본 고지성 편집, 촬영 고수호 음향 남궁동근
출연	장명진(전재욱 役), 남궁준(남궁준 役), 조수호(조수호 役), 김준환(김준환 役), 김진수(김진수 役)
지도교사	이종필

심사평

기술적인 완성도는 뛰어나지 않지만, 주제를 명확하고 아이러니하게 잘 풀어냈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앞만 보게 되는 상황을 통해 올바른 목적의 성취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 주는 영화다. (이선영)

영화 부문_자유주제



충간화음

2021	영화
16:9	23min 38sec
칼라 HD	경기예술고등학교

시놉시스

기숙사에 사는 혜원은 아침부터 밤까지 개인적인 시간 없이 친구들과 함께해야 하는 삶에 피로를 느낀다. 사람들에게 지친 날 혼자 있고 싶어 불 꺼진 사립실로 향하는 혜원. 그때, 위층에서 한 아이의 노랫소리가 자신의 공간을 침범한다.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던 그 아이에게 혜원은 예상치 못한 위로와 동질감을 느끼고 다음날도 그 아이의 노래를 듣기 위해 찾아간다. 어느 날, 자신에게 위로를 주던 그 아이는 마지막 울음소리만 들려주고 사라져버린다. 혜원은 그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

기획의도

사람들이랑 있으면 혼자 있고 싶지만 막상 진짜 혼자가 되는 건 두려운 감정을 다루고 싶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각자만의 공간을 추구하고 타인의 침범을 거부한다. 대표적인 예가 층간소음에 대한 혐오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공간에만 안주하고 싶지만 어딘가 외로움이 느껴지는 요즘, 생각지 못한 다른 층에서의 소음을 이용해 새로운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청소년 시기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스스로를 감추곤 하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은 상관 쓰지 말고 내가 놓고 싶은 애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다

제작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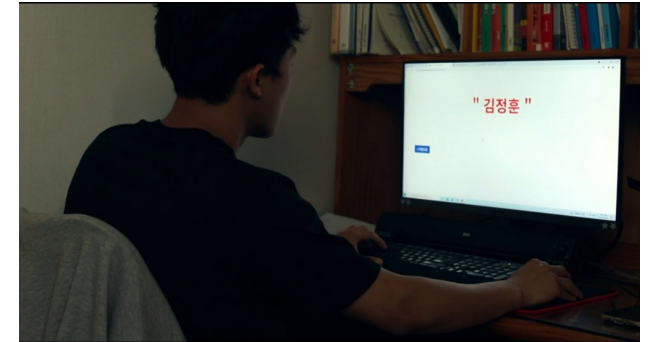
이 영화는 내가 3년 동안 기숙사에 살면서 느꼈던 감정을 토대로 만든 영화이다. 같이 있으면 지치지만 혼자 있으면 외로운 모순적인 감정. 나만 느끼는결과 의문이 들어 영화를 만들게 됐다. 배우 5명 모두 실제 기숙사에 사는 배우들로 캐스팅하여 영화 찍기 전부터 대화를 많이 나눴고, 이 감정을 나만 느끼고 있지 않다는걸 확인할 수 있었다. 영화를 상영한 후엔 공감과 위로를 얻었다고 말해주는 관객들을 통해 영화로 세상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내 감정도 더 깊이 들여다보며 모든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심사평

일상 속 작은 소재를 발전시키는 힘이 뛰어나고 층간 소음이란 익숙한 인식을 층간 화음으로 바꾸어 낸 점이 대단합니다. (권철인)

영화 부문_자유주제



클릭

2021	영화
16:9	27min 2sec
칼라 HD	청소년영화제작 전문그룹

시놉시스

경제적 곤란에 처한 주인공이 모든 답을 알려주는 사이트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데, 사이트의 이용 조건이 기억을 하나 잃는 대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 알려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주인공은 사이트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주고, 답을 입력해주는 방식을 통해 돈을 벌게 되고, 나중에는 많은 돈을 가지게 되지만, 주인공의 소중한 연은 기억이 사라짐과 동시에 하나씩 사라져가는 서스펜스극

기획의도

삶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단순한 기억들(인연들)조차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전에 있던 인연들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곱게 보이지 않았고, 결국 이런 현상을 비판하기 위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작후기

시나리오라는 체계적인 글 자체를 처음 수업을 통해 처음 써보았고, 처음 써본 글을 좋게 보여서 뿌리고, 감독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모든 게 처음이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과 선생님들의 도움 덕에 결국 영화 촬영과 편집을 마치게 되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를 가지고 kymf라는 큰 공모전에 출품하는 것 자체만으로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사평

선택한 소재도, 도전정신도 좋았습니다. 다만 대본 구성을 더 논리적으로, 더 치밀하게 했다면 엔딩의 느낌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적으로 제약이 많겠지만, 조금씩만 더 고민하면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합니다. (최현규)

SATFF	감독 이상윤 조연출 이상혁 스크립터 전해원 촬영 김유비(메인), 편석훈(메인) 정지윤(보조) 편집 편석훈 음향 류시영(메인), 이민주 PD 박하민 조명 최은혜 현장보조 김민지, 최아리린
출연	양영문(김정훈 役), 김시윤(엄마 役), 나현우(이진수 役), 이재성(김민철 役), 김형원(연준 役), 문경태, 임승재(연준 무리 役), 김영지(김미주 役), 정우철, 황희성(뒷담화 학생 役), 김수연, 정미리, 김예향, 전은지, 윤한솔 (학생 役)
지도교사	강연하

영화 부문_자유주제

영화 부문_특별주제



현재의 소원

2021	영화
2.35:1	18min 10sec
칼라 HDV	경기에술고등학교

시놉시스

AI가 상용화된 세상. 어느 날 학생들 중에 AI가 있다는 소문이 퍼진다. 소원은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남자친구 현재가 AI라고 믿고 싶지 않다

기획의도

어떤 게 진짜 사랑인지 구분 짓고 정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사랑에 대한 정의 이전에, 나를 믿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다.

제작후기

AI에 관한 영화이다보니 연기나 연출적인 면에서 결코 만만하진 않았다. 하지만 현재와 소원에게 서로가 있었던 것처럼, 나를 믿어주는 스태프들이 있었다. 내 영화인 동시에 모두가 함께 만든 영화라는 마음으로 힘을 얻어 영화를 완성했다.



SATFF	연출 조해솔 제작 강민채 촬영 송기차 조연출 양선민 동시녹음 정준아 조명 김원준 미술 김민지 스크립터 김수현 어시스턴트 심민아
출연	이선혜(소원 役), 김범수(현재 役), 정소현(해솔 役), 이원근(석민 役)
지도교사	이원근

심사평

이야기가 참신하고, 적절한 인물 배치로 완성도 높은 작품. 특히 관객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최두영)



Air Drop

2021	영화
16:9	13min 17sec
칼라 HD	서울방송고등학교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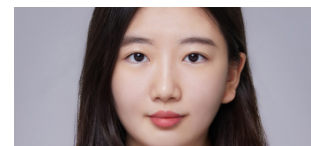
어느 날 지원에게 한 에어드랍이 오게 된다. 장난인가 싶던 것이 강도가 심해지고 지원은 공포에 떨게 된다. 지원과 아라는 범인을 찾으려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찾을 수 없어 더욱 큰 공포감에 휩싸인다. 두려움에 떨며 범인을 찾던 중 지원의 핸드폰에 우르르 뜨는 하나의 에어드랍 이름.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로 반 친구들 모두가 작당하고 에어드랍으로 자신을 괴롭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미안함 없이 평소처럼 대하는 친구들에 지원도 웃으며 대처할 수밖에 없다. 웃는 얼굴 아래로 계속해서 울리는 에어드랍과 떨고 있는 지원의 모습으로 끝이 난다.

기획의도

에어드랍이라는 휴대폰 기능을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이상한 사진을 보낸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에어드랍만 이 가지는 특징이 익명으로, 근처에서만 사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에어드랍 기능을 활용한 공포 영화를 만들어 익명이 보장되는 사이버정글 속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 그걸 겪는 사람의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려 했다. 나는 이 영화를 통해 사람들의 사이버 세계에서의 이중성과 그러한 일을 당해도 쉽게 대처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현실을 담아보려고 했다.

제작후기

촬영, 편집, 음향 등 다양한 포지션으로 영화 제작에 참여해 보았지만 연출로서 촬영을 했던 건 에어드랍이 첫 작품입니다. 그래서 많이 모자란 점도 있었지만 영화를 완성시키고 싶다는 집념 하나로 친구들과 함께 협업해서 영화를 완성하고 상영했을 때 정말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촬영 중 지원을 연기하는 친구를 보며 사이버 폭력이 당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피해를 주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연출로서 의미를 전달하는 동시에 스스로도 많은 깨달음과 배움이 있었던 촬영이었습니.



SATFF	연출 이지혜 조연출 박수빈 촬영 조명빈 조명 정지성 음향 정효원 편집 황예원(메인), 이지혜
출연	황예원(김지원 役), 조혜주(김아라 役)
지도교사	임수진

심사평

에어드랍의 특성을 영화 모멘텀으로 설정한 점과 서스펜스의 긴장감을 영화적으로 표현한 점이 좋았습니다. (김익중)

영화 부문_특별주제



Jazz on the Floor

2021	영화
4:3	3min 52sec
혼합 HD	이현고등학교

시놉시스

지루함을 느끼던 나는 방바닥을 밟을 때 나는 소리에서 리듬을 느끼게 된다. 그 소리에 재미를 붙인 나는 밀충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뛰기 시작한다. 결국 소음을 못 참은 아랫층은 우리 집 문을 두드리게 되고 초반에 겁을 먹는 나는 아랫집이 어차피 집에 못 들어온다는 사실에 안심하여 아랫집 사람이 두드리는 노크 소리마저 리듬으로 느끼며 재미있어 하며 조롱한다. 그렇게 지루함도 풀렸을 때 이번에는 본인의 뒹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였고 뒹집의 문을 두드려도 뒹집은 반응이 없다. 이윽고 나는 전 층이 층간소음을 내고 층간소음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기획의도

주인공이 된 이유는 재미와 더불어 밀충 사람을 대면하지 않는다는 안도감 때문이다. 즉 마지막 주인공의 뒹이 키보드 타이핑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층간소음은 인터넷에서의 악플, 가짜뉴스 등 사이버관련 범죄들을 나타내며 악명성에 기대어 함부로 행동하면 이는 곧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부각하여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사이버시대 현대인들의 사람간의 관계 단절로 인한 이기적 또한 쾌락적 행보를 비판하기 위하여 일부러 영화에 대한 음향의 충실도를 떨어뜨려서 시사하였다.

제작후기

나는 이제 3학년이기에 청소년으로서의 작품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 그렇기에 아쉬운 마음 또한 들며 더욱 학생다운 작품들을 못 남긴 것이 한이 되기도 한다. 혼자서 모든 작업을 하는 것이 쉬운 과정이 아니었으며 촬영 구도가 잘 안 잡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 고민을 하며 답을 내는 과정이 힘들면서 즐거웠다. 나의 마지막 청소년작품을 잘 마무리 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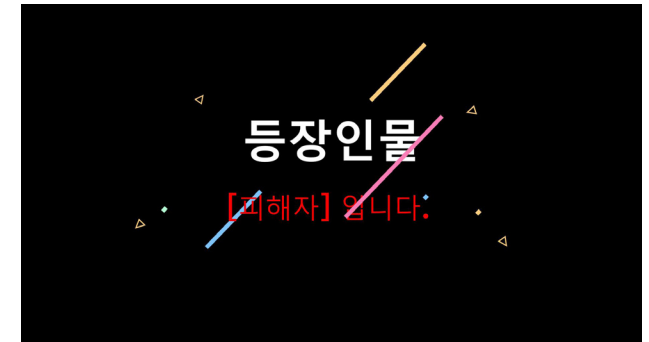


SATFF	메인·기획편집·촬영 이수민
출연	이수민(이수민 役)
지도교사	최정술

심사평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실적인 접근이 아니라 상상력을 활용한 창의적 해석이 특별합니다. (정재형)

영화 부문_특별주제



플레이어 X

2021	영화
16:9	28min 30sec
칼라 4K	군산서흥중학교

시놉시스

이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실제 사이버폭력의 상황에 대한 내용이다. 학교에 새로 전학 온 김민준은 최준영 패거리에 의한 사이버폭력으로 힘들어한다. 괴롭힘은 점점 심해지지만, 그를 위해 선뜻 나서서 친구는 거의 없다. 그래서 그는 스토리를 재시작한다. 이것이 두 번째 부분의 시작인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이버폭력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술래잡기에 묘사되어 있다. 김민준은 가해자로부터 도망다니지만 스스로 사이버폭력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게 된다. 결국 친구들이 나서서 그를 도와주며 이야기가 끝난다.

기획의도

첫 번째 부분에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을 보다 현실적으로 작품에 투영하면서도 등장인물 앞에 생기는 창을 통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압박이나 등장인물의 감정 등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이버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술래잡기에 비유함으로써 서로가 쫓고 쫓기는 관계임을 명확히 드러내었다. 또한 거의 불가능한 일을 바탕으로 피해자 스스로 사이버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지켜보는 친구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채팅창을 사용해 폭력을 불 때의 그들의 태도와 그 변화를 나타냈다.

제작후기

나는 영화를 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영화 설정이 다른 설정이나 장면들과 잘 맞는지도 생각했고, 등장인물이 어떻게 어떠한 사건을 해야 하는지도 생각했고, 또 여러 상황 사이에 모순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도 했다. 영화가 모두 제작된 지금 보면 제작하는 과정 자체에서 재미를 느꼈던 것 같다. 우리만의 세계관을 구성하고, 영화로 나타낸다는 것이 매우 즐거웠고, 많은 친구들이 잘 따라줘서 이룰 수 있었던 결과이기도 한 것 같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다시 한 번 열심히 도와준 친구들에게 고맙다.



SATFF	감독·대본·각본·편집·음향 이희찬 촬영 이희찬(메인), 전예림 배우모집 이희찬(메인), 전예림(메인), 하주형, 옥예은, 강연호, 주은성, 하형석 소품 이희찬(메인), 전예림(메인), 하주형, 옥예은, 강연호, 주은성, 하형석
출연	이슬찬(피해자 役), 강동욱(가해자 役), 조성민, 차한울, 김휘서(가해자 패거리 役), 김도영, 정지민, 노아현, 조수빈, 최예서, 황수진, 이성민, 옥예은, 하주형, 하형석, 조윤민(반 친구 役), 김예서, 변서빈, 배가은, 박세은, 김태희, 윤제니, 정효원, 전지우(지나가는 친구 役)
지도교사	최수현

심사평

게임의 플레이 방식을 플롯에 적용한 점이 뛰어나다. 각기 다른 등장인물과 상황을 설정하여 스토리를 만들었던 노력에 박수를! (김윤신)

실험영역 부문_ 자유주제, 특별주제

주제	작품명	출품대표자	소속
자유주제	Barbie	유재성	서울방송고등학교
	나의 머리는 녹색	박정인	서울방송고등학교 그린필름
	너는 나의 문학	이새별	서울방송고등학교
특별주제 <사이버정글속 프로메테우스>	어쩌다 16 "사이버지만 안 괜찮아"	정주은	홍성군청소년수련관 진로동아리 놀품

*작품명 배열 순서는 수상 순서와 다름을 안내드립니다.

21st Korea Youth Media Festival
(KYMF 2021)

실험영역(뮤직비디오, 비디오아트 등) 부문_ 자유주제



Barbie

2021	실험영역
16:9	2min 53sec
칼라 HDV	서울방송고등학교

시놉시스

엄마가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주영. 엄마는 주영을 인형이라고 생각해 어디에서나 신경을 쓴다. 주영이가 그린 그림이 낮은 점수를 받는다. 다른 친구의 그림을 보고 새로운 감정을 느낀 주영. 주영은 다시 그림을 그려 높은 점수를 받아 좋아한다. 그러나 주영이 하고 싶은 것 막는 엄마. 주영은 하고 싶은 것을 막은 엄마한테 싫어하는 감정을 드러내며 싸우게 된다. 주영은 엄마랑 같이 있던 장소를 엉망으로 만든다. 주영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으러 떠난다.

기획의도

보통 'Barbie'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인형놀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날 것 이다. 나는 그걸 바탕으로 'Barbie'라는 작품에서 바비인형을 학생으로 표현하고, 인형놀이를 하는 사람은 부모님으로 표현하여 부모님들의 자식에게 강요하는 모습을 인형놀이에 빗대어 왜 우리의 삶은 부모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지, 부모님의 강요에서 벗어나 인형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Barbie"에 표현하여 영상으로 담고 싶었다.

제작후기

한번쯤은 저의 손으로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동아리에서 부원들과 함께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기에 저의 영상이 무사히 완성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연출이었지만 저를 잘 따라와 준 동아리 해시택 부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SATFF	연출 유재성 조연출 이민영 제작 김신우, 김채린(보조)
	촬영 황소명, 김희재(보조) 조명 유재성, 이민영(보조), 한주오(보조) 미술 김희지, 방다은(보조)
출연	이유빈
지도교사	김나현

심사평

연출이 의도한 방향으로 소품 및 2D구성을 이끌어간 모습이 좋았다. (김종완)

실험영역(뮤직비디오, 비디오아트 등) 부문_자유주제



나의 머리는 녹색

2021	실험영역
16:9	4min 28sec
칼라 HD	서울방송고등학교 그런필름

시놉시스

타인의식증후군을 앓고 있는 초연의 극복 과정을 담아낸 뮤직비디오다.

기획의도

타인의 의식을 지나치게 신경 쓰며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타인은 생각보다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제작후기

저의 두 번째 연출작 뮤직비디오, 나의 머리는 녹색. 첫 작품보단 나아졌지만 아직 많이 서툴렀던 작품이다. 이 작품을 끝냈을 때의 기분이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시원했다. 못 잤던 잠을 잘 수 있었고 못 보던 영화와 책도 볼 수 있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작품에 대한 애정도가 매우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잠을 이틀, 삼일 꼬박 새놓고 다시 등교를 할 수 있다는 게 나 역시 놀라웠다. 후련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나의 머리는 녹색. 그래도 행복했다.



SATFF	연출·편집 박정인 조연출 양수연 스크립터 박지안 촬영 이승재(메인), 이수호 제작 조혜영(메인), 김민정 조명 정현지
출연	송지민(초연 役), 홍서진(모자녀 役), 이수호, 박지안(학생 役)
지도교사	임수진

심사평

지금 바로 상업 뮤직비디오 작업을 해도 좋을 정도의 연출과 촬영앵글, 편집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줌 (김종완)

실험영역(뮤직비디오, 비디오아트 등) 부문_자유주제



너는 나의 문학

2021	실험영역
16:9	4min 5sec
칼라 HD	서울방송고등학교

시놉시스

책을 읽으며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 소녀.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정원에서 뛰어놀며 좋아하는 감정을 표출한다.
잠에서 깬 소녀는 그 친구와 함께 평소를 즐긴다.

기획의도

순수하게 한 사람의 좋아하는 감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보고 우정인가 사랑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소녀의 순수한 감정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작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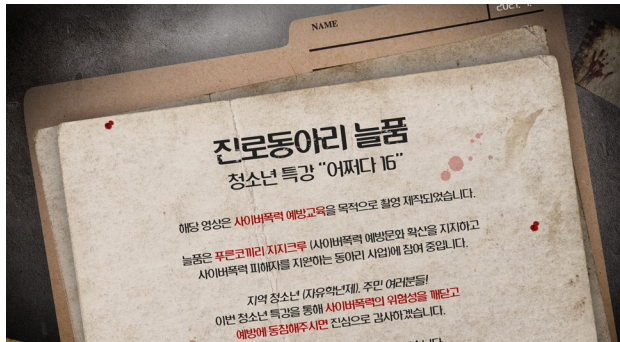
촬영할 땐 정말 덥고 힘들었지만 결과물이 잘 나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 사람들이 그저 순수한 한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텝분들이 특히 고생을 많이하신 이 작품이 저에게 정말 소중한 작품입니다.



SATFF	연출 이새별 조연출 김유진 연출부 박민주 제작 이수연 촬영 홍예찬(메인), 김태민 조명 정효원 편집 홍예찬(메인), 이새별
출연	박선우(주인공 役), 권지은(소녀 役)
지도교사	임수진

심사평

감각적인 앵글과 편집으로 마치 프로의 작품 같았다. (김종완)



어쩌다 16 "사이버지만 안 괜찮아"

2021	실험영역
16:9	7min 57sec
칼라 HD	홍성군청소년수련관 진로동아리 늘품

시놉시스

어쩌다 16, "사이버지만 안 괜찮아" 제목과 같이 사이버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중학생(14~16세) 연령대가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백신어플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또래 청소년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기획의도

해당 영상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목적으로 촬영 제작되었습니다. 늘품은 푸른코끼리 지지크루(사이버폭력 예방문화 확산을 지지하고 사이버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동아리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이번 청소년 특강을 통해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을 깨닫고 예방에 동참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Stop_Violence #나는외면하지않겠습니다

제작후기

어쩌다 18 "우리는 어쩌다 열여덟이 되었을까?"에 이어서 <어쩌다 시리즈>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로동아리 늘품은 푸른나무재단 푸른코끼리 지지크루로 활동하면서 사이버폭력이 우리 일상과 먼 것이 아닌 더 이상 때놓을 수 없는 위험인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SATFF	감독 전소현 기획 송가인 연출 김아라 촬영 신소이 조명 서진호
출연	정주은, 박선우
지도교사	강선경

심사평

사이버폭력에 대한 체험을 과장되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정재형)

21st Korea Youth Media Festival
(KYMF 2021)

사진 부문_자유주제/특별주제

주제	작품명	출품대표자	소속
자유주제	恸摑(흥터)	장현지	안산강서고등학교
	Traveler	김도예	안양예술고등학교
	길 잃은 어린아이	이소연	안양여자고등학교
	상상	박유비	백운고등학교
	외로운 도시	신예진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원곡동	김민지	부사진학원
특별주제 <사이버정글속 프로메테우스>	돌이킬 수 없는	문지영	푸른나무미디어스쿨

*작품명 배열 순서는 수상 순서와 다름을 안내드립니다.

21st Korea Youth Media Festival
(KYMF 2021)

사진 부문_자유주제



恸摑(흥터)

작품주제

우리 엄마는 오른쪽 팔과 턱에 화상 흉터가 있다. 어릴 적부터 있는 이 흉터는 엄마에게 상처를 안겨 준 원인이었다. 늘 징그럽다 생각하고 가려야 할 것 같았던 흉터를 아름답게 표현함으로써 흉터까지도 아름다운 엄마의 모습과 흉터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엄마의 모습을 담아보았다. 이 흉터는 더 이상 상처의 자국이 아닌 마음 속 깊숙이 자리잡은 두려움을 푸는 첫 계단이 된 것이다.

촬영의도

어느 날 엄마가 '남이 이 흉터를 보면 징그럽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물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왜 흉터는 항상 징그럽다고 인식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려야 숨겨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걱정하는 엄마의 생각과는 달리 흉터가 전혀 징그럽지 않다는 것을, 이 흉터까지도 아름다운 엄마의 모습을 엄마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사진에 담아내고 싶었다. 또, 흉터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엄마의 모습을 담아보고자 했다. 비교적 어두운 사진과 밝은 사진이 번갈아 나오는 것은 이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촬영후기

처음에는 이 흉터가 엄마에게 더 이상 상처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 시작하게 된 촬영이었다. 하지만 촬영을 할 때 내 의도와는 다르게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엄마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때마다 엄마와 더 많은 대화를 했고, 이 촬영은 엄마와 나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던 기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무엇보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엄마의 트라우마가 이 촬영을 통해 열어졌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타인의 상처를 다루는 촬영이었기 때문에 타인의 상처에 공감하며 그것을 사진으로 보듬어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카메라기종

캐논 5D Mark3



작가	장현지
지도교사	배현

심사평

어머님이 느끼는 고립감과 격리감,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빛과 그림자 그리고 색조를 이용한 장면 구성 능력도 탁월하다. 모든 면에서 공감되는 작품 (심사위원 오형근)
어머니의 화상 흉터를 세상에 내놓도록 함으로써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흉터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하는 이런 작업은 사진가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역량도 보인다. 이 작업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면 같은 주제로 계속 작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심사위원 허현주)

사진 부문_자유주제



Traveler

작품주제

내가 독거노인이려면? 특별히 육아를 해야 한다거나 돈을 벌어야 하는 것도 아닌, 목적이 없는 삶을 사는, 죽을 날만을 앞둔 상황이다. 그저 노후된 몸 덩어리만 남은 상태이다. 생각해보면 너무도 비극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 오랜 시절을 무시하고, 지금 당장의 '독거'로 인해 우리는 모르는 삶을 감히 짐작하고 슬프게만 바라보는 것은 단편적인 생각이 아닐까? 죽음의 끝은 아니다. 누구도 죽음이라는 벽 너머는 모르는 것이다. 지구에 놀러 온 여행자라면? 우린, 여행을 끝낼 뿐이다.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이 슬프지 않은 것이다. 현실이 비극이나 희극이나를 따지기보다도, 지구에 놀러 온 인생의 여행자로써 마무리 부분을 담아 본 것이다. 다음에 연결될 세상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촬영의도

독거노인을 소재로 이상세계를 표현했다. 처음엔 나이가 많으신 친할머니를 단순 '기록'하려 했다. 찍다 보니, 할머니를 슬픈 마음으로 찍고 있고, 보고 있었다. 왜 독거라는 단어가 붙는다고 그렇게 보여야하고 들려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원래의 생각에 반감이 들었다. 할머니는 할머니만의 공간에서 이상세계를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품으며 작업을 진행했다.

촬영후기

신체 일부를 크롭해 찍는 것 자체로 죄책감이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죄책감은 모든 것을 알아 먹는다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의 그 주름진 부분을 언제 또 볼 수 있는 것인가? 언젠가는 만지지도 못할 수도 있는 대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 할머니라는 대상을 이렇게나 자세히 볼 수 있을까? 그만큼 사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사진을 만들어낸 사람은 내가 아니겠는가. 나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그 이후로 어떤 이유론 필요 없는 사진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할머니와의 작업이 날이 갈수록 외닿는 것도 많아 내게 몹시도 소중한 작업이 된 것이다.

카메라기종

canon eos-r + 5D MARK 3



작가

김도혜

심사평

자칫 평범하게 전개될 수도 있을 작업을 독특한 시각 구성과 편집, 그리고 연출로 흥미롭게 만들어냈다. 여기에 할머니의 표정 연기와 잔잔한 유머는 큰 몫을 해낸다. (심사위원 오형근)
독거노인을 주제로 사진작업을 하면서 혼자 살고계신 친할머니 모습의 사진적 재현이 처음 생각하고 그랬던 독거노인에 대한 해석이 변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혼자 사는 사람은 늘 쓸쓸하고 외롭다고만 생각할 수 있으나 작업을 하며 할머니의 삶을 보면서 혼자 살아가는 것에 적응하고 나름의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면서 자신만의 이상세계를 펼치는 모습을 잘 표현하였다. (심사위원 허현주)

사진 부문_자유주제



길 잃은 어린아이

작품주제

'길 잃은 어린아이가 어버이를 찾듯이.' 어른은 늘 강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무엇인가 힘들다 해서 우리처럼 SNS나 공개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밝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어떤 어려움에도 혼자 버텨내고, 불현듯 찾아오는 슬픔까지도 참아내는 그런 강인한 존재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런 어른들이 '기도' 앞에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눈물 콧물 모두 다 쏟아내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마치 놀이공원에서 풍선을 놓쳐버린 혹은 눈 깜짝할 새 부모를 놓쳐버린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했다.

촬영의도

인간의 본질적인 내면을 알고 싶었다. 누구보다 우월하고 잘나 보이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 강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어른스럽고, 지혜로워 보이는. 그렇지만 사실은 아름다운 포장지에 둘러싸인 속이 빈 상자일 뿐, 그 겉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나보다 몇 배 이상의 삶을 살아오며 수많은 경험해 해왔을 50대 이상 어른들을 담아냈고 또 진솔한 모습을 알고 싶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남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참모습을, 사진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한다.

촬영후기

감사한 순간이 너무 나도 많았고 배울 점도 많아서 행복한 촬영이었다. 촬영할 때 울면서 셔터를 눌렀다. 은혜를 받기도 했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눈물이 났다. 특히 부모님의 모습을 담아낼 땐 너무 나도 마음이 아팠다. 정말 부모님은 너 울성 파도가 지나가도 건디는 바위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빠가 "아버지, 아버지"하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의 무게와 아빠의 인생이 보여서 찍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아빠에게서 처음으로 어린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또 엄마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 엄마의 희생을 엄마는 강한 사람이라는 핑계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서 이기적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카메라기종

캐논 EOS 5D Mark III



작가

이소연

지도교사

배현

심사평

어두운 로우 키의 흑백과 인물들의 슬픔은 압도적이다. 울음이 항상 진실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이 경우에는 진심이 와닿는다. 마음은 무거워지지만, 역설적인 아름다움도 느껴지는 작업 (심사위원 오형근)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나 어른들은 강한 존재라고 믿으며 성장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의 낙약해진 모습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간혹 당황스럽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소연 학생은 어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그 순간을 잘 담아냈다. 다만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촬영한 것이어서 피사체들의 그 숭고한 순간을 방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심사위원 허현주)

사진 부문_자유주제



상상

작품주제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에 그려보는 '상상'이라는 행위는 초월적이면서도 창조적이다. 내가 차마 용기내어 보지 못한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그들의 보이지 않는 상체는 내 머릿속에서 그들의 외모를 상상하게 만든다. 나의 소심한 성격 탓에 한정적으로 내 눈에 들어오는 그들의 다리와 발로써 모르는 이들의 발자취와 과거를 상상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 온 길을 추측할 수 있도록 만든다.

촬영의도

소심한 성격 탓에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대중교통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발이나 걸음걸이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고 있을지,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했던 경험이 잦았는데 그들의 발을 사진으로 찍으면 내 사진을 보는 사람들 또한 나와 비슷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사진들에서 비로소 내가 표현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촬영하게 되었다. 또한 사람의 발은 어느 신체부위보다 자연스럽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 촬영의 소재로 삼게 되었다.

촬영후기

내가 가장 자주, 많이 유심히 보는 소재인 발을 주제를 담아 찍다보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좋은 경험이었다. 처음에는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두렵고 눈치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것 자체가 뿌듯하기도 하고 재미가 들어 더 집중해서 사진을 찍게 된 것 같다. 또한 공모전이라는 목표가 내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사진을 찍게 도와준 것 같아 성취감이 들었다.

카메라기종

canon 5d mark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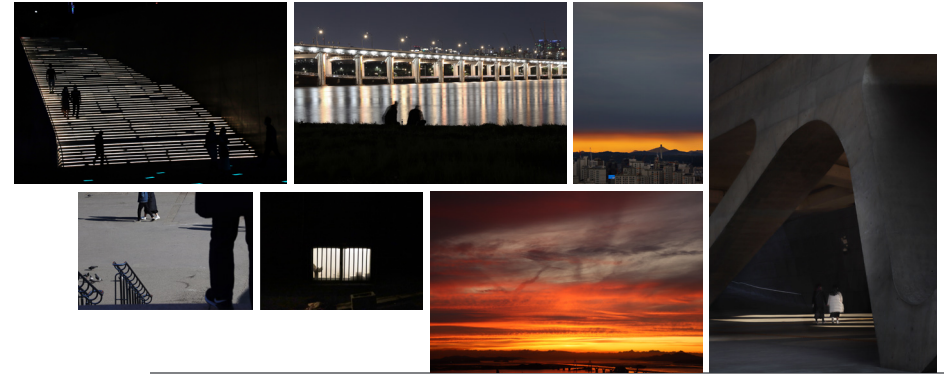
작가	박유비
지도교사	배현

심사평

발짓, 몸짓, 손짓... 사람들이 보여주는 무의식적인 태도와 자세들의 의미를 읽어내는 훌륭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그것들을 조형으로 풀어내는 화면 구성 능력 또한 뛰어나다. 무엇보다도 조용하게 자신의 감성을 표현하는 성숙함이 인상적이다. (심사위원 오형근)

박유비 학생의 '상상'은 지아철 맞은편에 앉은 승객들의 다리를 독창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 작품들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상력을 펼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도록 기회 마련하는 작품이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소재이나, 세련되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있으며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또 다른 상상을 미소를 머금을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한다. (심사위원 허현주)

사진 부문_자유주제



외로운 도시

작품주제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상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촬영의도

이 작품들을 통하여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상태에 대해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발전이 빠른 만큼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감정과 빠른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바쁜 도시 속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에 불구하고 외롭게 느껴지는 현재 사회를 사진의 빛, 색깔, 및 구성을 통해 표현해보았습니다.

촬영후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뤘던 손에 꼽히는 도시입니다. 수도권 서울은 그에 걸맞게 매우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지금은 저층 콘크리트 건물들이 고층빌딩으로 변하는 2차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도시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대한 저의 시선과 생각이 전해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메라기종

EOS200DII



작가	신예진
지도교사	신승호

심사평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화면 구성 능력이 탁월하다. 또한 도시의 일상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색조를 독특하게 표현했다. 무엇보다도 이 이미지 이상의 감성적인 이야기를 이끌어낸 점이 돋보인다. (심사위원 오형근)

도시를 구성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바쁘게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 마천루들, 다양한 탈것들, 각양각색의 야간조명으로 화려한 풍경. 그런 곳은 늘 사람들로 꽉 차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외된 사람들은 복잡한 도시의 삶과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신예진 학생은 화려하지만 오히려 그런 도시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잘 표현하였다. 사진의 수가 좀 많아 중복되어 보이는 사진의 수를 좀 줄인다면 스토리텔링의 구성이 더욱 탄탄하게 구성될 수 있을 것 같다. (심사위원 허현주)

사진 부문_자유주제



원곡동

작품주제

주민 대다수가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들로 이루어진 경기도 안산시의 원곡동, 어떤 동네가 아닌 원곡동이라는 고유 명사가 주제이다.

촬영의도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이 키워드를 들으면 당신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레 겁먹거나 본래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을 펼치기 일쑤이다. 이러한 편협한 시선은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 우리의 예민한 생각들이 그들을 예민하게 만든 걸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촬영을 시작하게 됐다. 있는 그대로의, 날 것의 원곡동 그 자체를 담기 위해서.

촬영후기

처음엔 나도 약간의 두려움과 촬영을 시작했지만 역시나 그것은 나의 선입견과 주변 사람들의 진심어린 격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좋은 분들도 만났다. 네번째 사진의 노점상 분은 흔쾌히 사진 촬영도 허락해주셨고, 음식도 주셨다. 안산 사람들도 원곡동은 꺼려하고 위험하다고들 말한다. 그래서 그런지 더 궁금해졌다. 우리들의 편견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고, 원곡동 자체를 담고 싶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사진들에 담기지 않았을까 싶다.

카메라기종

canon eos 5d mark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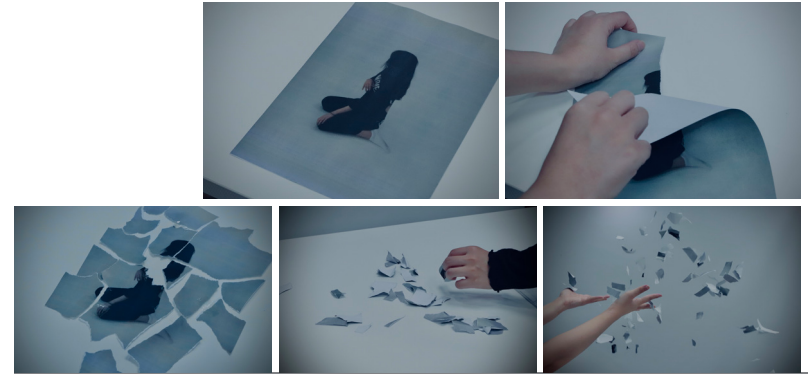


작가 김민지

심사평

글을 읽어보면, 원곡동을 잘 알고 있다. 시각적으로도, 원곡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빛과 색조를 잘 표현해 내고 있다. 노력과 창의성, 그리고 진정성... 훌륭한 다큐멘터리 작업에 필요한 주요 덕목을 잘 갖춘 작업 (심사위원 오형근)
안산의 원곡동은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을 주제로 민족적 다양성이 스며들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를 비주얼 스토리텔링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왜 이런 주제를 선택했는지 성찰하면서 작업을 이어나간다면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심사위원 허현주)

사진 부문_특별주제



돌이킬 수 없는

작품주제

디지털미디어를 배경으로 한 폭력의 가장 큰 위험성으로는, 국경을 넘어서 정보공유의 범위와 빠른속도로 공유되는 파급력이라고 생각한다. 본 작품은 영화 '다우트'의 한 장면인 한 여인이 남의 험담을 한 것에 죄책감을 느껴 신부님을 찾아가게 되었고 신부님은 여인에게 배계를 짓고 옥상으로 올라가 그 안의 깃털을 날린 후 이를 모두 다시 주어 오라하여, 한번 퍼트린 소문은 쉽게 되돌리기 어렵다는 메세지가 사이버 폭력속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높은 파급력으로 인한 위험성과 흡사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본 작품을 기획하게 되었다.

촬영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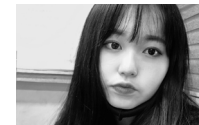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는 5가지 장면을 사진으로 담아 보았으며, 본 작품속 한 여학생의 사진이 누군가에 의해 찢겨 이를 직접 종이를 날려 퍼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한 이후 종이조가리를 다시 주워보지만 여전히 비워져 있는 부분과 어거지로 다시 붙인 사진은 찢어지기 전의 사진과 같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여학생의 심장 부분이 비워져 있는 것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는 것 또한 어렵지만 여학생의 다친 마음 또한 되돌리기 어렵다는 메세지도 함께 담아져 있다.

촬영후기

처음 작품속 사진의 인물을 직접 그릴지, 또 성별을 어떻게 할지 등 많은 고민을 하였다. 모두가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고민 속 내린 결론은 '나'를 촬영하기로 판단하였다. 사이버 폭력사태 속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나의 노력은 무엇일지 고민해보았다. 1인 미디어 시대, 너도 다른사람도 아닌 나또한 미디어 시청자이자 동시에 공유자임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며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폭력없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작품을 연출하고 본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다.

카메라기종

Canon EOS 800D



작가 문지영

지도교사 오유정

심사평

시퀀스와 소품의 이용이 주제와 의미를 명료하게 전달한다. 전체적으로 감도는 차가운 색조도 효과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자아낸다. 연출 능력이 돋보이는 작업 (심사위원 오형근)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인간에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국가 극의 영향을 준다. 긍정적인 영향 중의 하나는 인간이 전지구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익명성이다. 익명성은 소통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신을 숨길 수 있다. 자신의 존재를 숨기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사이버 폭력이 점점 심각한 사회현상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 벌어지는 사이버 폭력 또한 예외는 아니다. 올해 특별주제는 청소년들 사이에 벌어지는 사이버 폭력에 관한 것이다. 문지영 학생의 '돌이킬 수 없는'은 청소년들 사이의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심사위원 허현주)

특별상 수상 부문

구분	작품명	수상자	소속
관객상	크로키	조연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햄버거	송지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연기자상	바람이 붓니다	이수희	봉담중학교
	Jazz on the Floor	이수민	이현고등학교
청소년심사위원상	생존할 차례	강채연	이우고등학교
지도자상	충간화음	이원근	경기예술고등학교
사이버정글가디언 푸른코끼리상(PUCO) &비폭력문화상	어쩌다16 "사이버지만안괜찮아"	정주은	홍성군청소년수련관
	플레이어X	이희찬	군산서흥중학교
	만수국	방하늘	경기예술고등학교

*작품명 배열 순서는 수상 순서와 다름을 안내드립니다.

21st Korea Youth Media Festival
(KYMF 2021)

특별상 수상 부문



크로키

2021	영화
2.35:1	18min 24sec
칼라 HDV	서울공연 예술고등학교

시놉시스

짝사랑하는 학교 선배 재현을 사이에 둔 두 여학생 나은과 민지 사이의 치열한 심리전. 우연히 재현을 따라 만화실에서 3분 크로키 모델을 선 후, 그에게로부터 아침마다 의미심장한 쪽지와 선물을 받는 나은. 어느 날 재현이 전학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고백을 결심하는데...

기획의도

자신의 성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여성 퀴어의 이야기를 학창시절 특유의 따뜻하고 청량한 분위기로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은이와 민지에게 이 영화를 바칩니다.

제작후기

성소수자와 퀴어의 고충에 관한 영상을 접하게 되어 여성 퀴어들의 이야기를 유쾌하면서도 무거운 청소년 영화로 풀어내었습니다. 20분 가량의 단편영화는 처음 연출해보았는데, 그만큼 촬영 회차도 길었고 코로나도 겹쳐 최소인원으로 모든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영화를 위해 함께 힘써주신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SATFF	감독 조연우 조감독 우진성 촬영감독 공한별 조명감독 김세희 미술감독 조수빈 제작부장 김수지 음향감독 송지현(메인), 하서연 촬영부 신승민
출연	조수영(나은 역), 김민서(민지 역), 김도현(재현 역), 김민서(연우 역), 임솔하(소희 역), 전원재(체육교사 역), 박실림(담임교사 역), 하태겸(선배 역)
지도교사	오경석

특별상 수상 부문



햄버거

2021	영화
2.35:1	17min 10sec
칼라HD	서울공연 예술고등학교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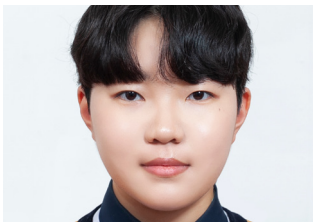
한적한 도시 외곽에 홀로살고 있는 장춘. 어느 날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미경(장춘의 딸)은 급한 일이 생겼다고 손자 재우를 장춘에게 맡긴다. 장춘이 정성스레 차린 밥상을 보고 대뜸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조르는 재우. 이에 장춘은 하는 수 없이 햄버거를 사러 집을 나서게된다. 그렇게 햄버거집을 향한 장춘의 모험이 시작된다.

기획의도

우리사회는 편의를 위해 갈수록 스마트해지고, 기계화 되어가고 있지만, 이면에는 이러한 변화들을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계층도 존재합니다. 영화 햄버거는 미디어 소외계층과 세대갈등이라는 주제를 담고있는데, 햄버거를 사러 떠난 장춘의 여정을 통해 우리사회가 이 영화처럼 서로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작후기

이 영화를 찍는데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ATFF	감독 송지현 조연출 조연우 연출부 강서현, 이근영 촬영감독 최예진 촬영부 박상현, 이성경 PD 우진성 제작부 김세희, 박준서 미술감독 이예람 미술부 공한별, 장다연 조명감독 김다은 조정부 이예림, 염채원 음향감독 하서연 붐오퍼 차소영 데이터매니저 양필승
출연	김정문(장춘 役), 권도훈(재우 役)
지도교사	오경석

행사장(서울특별시청) 안내

-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5번 출구

- 버스 (마을) 종로09, 종로11 / (경기) 799파주 / (간선) 103, 150, 401, 402, 406, N16심야,

(지선) 1711, 7016, 7022 / (경기) 790파주, 799파주 / (간선) 172, 405, 472, N62심야 / (마을) 종로09, 종로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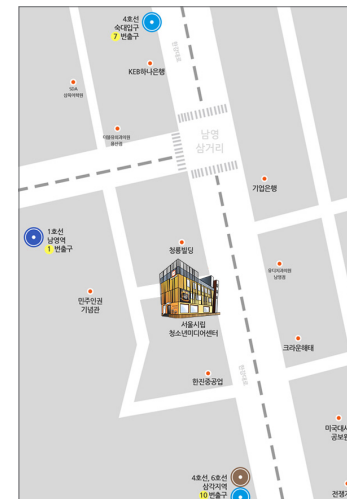
노선	출구
1,2호선	시청역 5번 출구

정류장명	버스번호
2. 프레스센터(02507)	(마을) 종로09, 종로11 (경기) 799파주
3. 시청앞, 덕수궁(02286)	(간선) 103, 150, 401, 402, 406, N16(심야) (지선) 1711, 7016, 7022 (경기) 790파주, 799파주
4. 시청광장(02641)	(간선) 172, 405, 472, N62(심야)
5. 시청역(02503)	(마을) 종로09, 종로11

행사장(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안내

- 지하철 1호선 남영역 한강대교 방면, 4호선 숙대입구역 7번 출구, 6호선 삼각지역 10번 출구

- 버스 숙대입구역 하차 149, 150, 151, 152, 162, 750B, 751, 752, 0013, 0211, 1711, 7016, 9502, 750A, 500, 501, 504, 506, 507, 605



노선	출구
4호선	숙대입구역 7번출구

정류장명	버스번호
1. 숙대입구역(03009)	149, 150, 151, 152, 162, 750B, 751, 752, 0013, 0211, 1711, 7016, 9502, 750A, 500, 501, 504, 506, 507, 605
2. 숙대입구역(03010)	149, 150, 151, 152, 162, 750B, 751, 752, 0013, 0211, 1711, 7016, 9502, 750A, 500, 501, 504, 506, 507, 605
3. 숙대입구역(03111)	162, 0211, 1711, 7016

2021 제21회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
2021 21st KYMF(KOREA YOUTH MEDIA FESTIVAL)

KYMF 2021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

2021.10.28.(목) ~ 2021.10.30.(토)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 유튜브 '스스로넷 TV' · 줌(ZOOM) · 제페토

발행인 : 이정연

발행처 :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발행일 : 2021년 10월 28일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5 (갈월동 101-5)

전 화 : 02-795-8000

팩 스 : 02-798-0014

본 자료는 판매용이 아닌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